

브로드웨이, 프라하, 그리고 한국이 뭉쳤다

한국발 월드 버전 <햄릿>

“또 햄릿이야?”라며 고개 돌리지 말길... 이지훈, 윤형렬, 박건형, 임태경이 선보이는 4색의 햄릿에 브로드웨이와 프라하 제작진의 공동 제작 정도 되면 귀가 솔깃해지지 않는가. 걸만 요란한지 그렇지 않은지 뚜껑은 이미 열렸으니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자. 에디터 이승민 자료 제공 시샵미디어(02-742-5473)



뮤지컬에 있어 이지훈, 윤형렬, 박건형, 임태경의 캐스팅은 영화 <좋은놈 나쁜놈 이상한놈>에 캐스팅됐던 정우성, 이병헌, 송강호만큼이나 화제가 될 만한 일이다. 식상한 소재를 화려한 캐스팅으로 포장하려 했던 건 아니다. 브로드웨이와 체코의 제작진과 의기투합해 ‘한국발 글로벌 뮤지컬’을 만들겠다고 나섰을 때부터 작품에 거는 포부가 남달랐으니까. 자칫 고루해질 수도 있는 레퍼토리에 환상의 라인업 진용이 가능했던 것도 그만큼 ‘투자 가치’가 있었기 때문. 국내 공연 제작사 최초로 해외 라이선스 작품의 공동 저작권을 갖고 세계 시장에 선보이는 ‘월드 버전’인 만큼 모든 이들의 구미를 당길 만한 요소가 분명 있다.

원작자 야베크 레텍츠키(작곡가 및 체코 공연 연출)와 로버트 요한슨(미국 공연 연출), 조지 하빌야(영어 작사) 등 해외 제작자들과 함께 한국의 스펀 엔터테인먼트가 공동 제

작한 이 첫 번째 작품은 이미 8월 21일 숙명아트센터 내에 위치한 씨어터S에서 그 베일을 벗은 채 오픈런 공연으로 진행되고 있다. 말하자면, 세계 진출을 예정에 두고 있는 새로운 버전의 <햄릿>을 서울에서 맨 먼저 감상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공연 제작사가 해외 라이선스 작품의 아시아 배급권 뿐만 아니라 저작권을 갖고 세계 시장으로 나갈 수 있다는 또 다른 판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나름의 의미를 인정해줘야 할 것 같다.

알다시피 완전한 첫 공연은 아니다. 지난해 원작자인 야베크 레텍츠키로부터 프라하와 브로드웨이 작품을 뛰어넘었다는 찬사를 받으며 시즌2까지 성공리에 공연을 마쳤던 <햄릿>은 이번 월드 버전을 통해 무대상의 변화와 함께 10분 더 길어진 공연 시간으로 업그레이드됐다. 빠른 템포의 흐름에 맞는 다이내믹한 회전 무대와 실재를 옮겨놓은 듯한 섬세한 무대 세트, 거기에 노래 두 곡이 추가됨으로써 작품의 연결 고리와 완성도를 높였다. 사실 이 작품은 지난 시즌1에서 셰익스피어 원작 내용 중 햄릿의 정체성과 내면 갈등의 표현이 부족하다는 평이 있었고, 이를 보완해 올려진 시즌2는 고전적 해석으로 연극적인 요소가 가미된 탓에 시즌1에서 선보였던 특유의 박력은 사라졌다는 평을 받았다. 이번 월드 버전에서는 햄릿의 내면에 대한 갈등을 표현하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캐릭터 간의 사랑 내용 역시 부각시켰다. 극의 빠른 전개와 대사의 최소화, 편곡으로 완성도를 높인 록과 클래식의 하모니 등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월드 버전에서는 여성 팬들의 발길이 더 늘어날 듯. 최근 5년 만에 첫 단독 콘서트를 열어 많은 인기를 확인한 임태경, 영화와 드라마 활동 이후 오랜만에 뮤지컬 무대에서는 박건형, 가수와 탤런트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이지훈, <노트르담 드 파리> 하나로 실력과 가능성을 모두 보여준 윤형렬까지 외모와 실력을 갖춘 ‘신 햄릿 4인방’의 동반 출연만으로도 가을을 앞둔 지금, 적잖은 여심을 물들일 것으로 보인다. 문의 02-715-6358